



김준형
기동취재본부장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정치적 목소리가 커진 청년 세대와 고령화 사회의 노년 세대 사이의 요구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 선출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정치적 목소리가 커진 청년 세대와 고령화 사회의 노년 세대 사이의 요구를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고 있어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법규(조례)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방대한 예산안을 분석하여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찾아낼 수 있는 분석력이 요구되며,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한다. 기초의원은 "따뜻한 가슴(봉사/소통)과 차가운 머리(전문성/정렬)"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동네의 살림꾼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투영할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독자 투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은 집이다. 하루의 끝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는 집이 반드시 안전한 공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며, 화재인한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택화재의 피해가 큰 이유는 초기 대응의 어려움 때문이다.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 방법도 간단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크다.

안전한 우리 집을 위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강진 군민의 안전을 위한 약속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

전라남도의 보물 같은 고장, 우리 강진은 예로부터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화재 앞에서는 그 소중한 이웃과 가족의 평화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강진군 안전, 선물로 전하는 진심. 강진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소방서와 거리가 먼 농어촌 마을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건강식품이나 생필품도 좋지만, 부모님과 이웃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소화기와 감지기를 선물해 보십시오.

오늘의 운세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음력 1월 10일)

48년생 회화수확 곳간이 든든해진다. 60년생 두려우면 건가다보 따리를 써내려가 72년생 손해다 싶어도 거미에 응해보자 84년생 안따운 책사랑 손만 갠다 96년생 수고와 압박을 보셔으로 변해간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피사정 김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3,000원 · 147/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